

피지컬AI 혁신거점 경남에서 ‘The Next AI’ 개막

- 9.24.~26.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
- 구글클라우드, LG CNS 등 글로벌 기업과 도내 SI기업 간 ‘AI솔루션 매칭데이’ 마련
- 삼성SDS, 업무시간 줄여주는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 소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4일(수)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The Next AI’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미디어 퍼포먼스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축사, 개막 퍼포먼스, 전시장 투어가 이어졌다. 오프닝 공연은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과 미래를 상징하는 실감형 미디어 퍼포먼스로 마련돼,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이 새 시대를 여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개막식에는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강정현 경남ICT협회장, 성경빈 LG CNS 공공사업담당 임원을 비롯해 도내 주요 대학, 유관기관, AI 기업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주요참석 :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윤인국 경남도 산업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강정현 경남ICT협회장,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장, 성경빈 LG CNS 공공사업담당 임원, 조원영 삼성SDS 사업기획그룹 그룹장, 김은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유세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장, 이성갑 경상국립대학교 교학부총장, 조영태 국립창원대학교 교학부총장, 고희석 경남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대희 인제대학교 대외부총장, 오동호 경남연구원 원장, 노충식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는 ‘The Next AI’에서 피지컬AI 등 차세대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선보인다. 창원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과 600A/B홀에서 국내외 AI 및 디지털 기업 약 80개사 15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네이버, LG, 구글, 삼성 SDS 등 글로벌 선도 기업과 경남을 대표하는 ICT·제조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 기

술과 산업별 적용 사례를 전시·시연하고,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 Physical AI :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차세대 AI

특히 구글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생산기술원)·LG CNS 등 글로벌기업과 도내 AI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AI 솔루션 매칭데이’가 개최돼, 상생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지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방산·제조 특화 AI 솔루션 등 경남 주력 산업과 AI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혁신 제품도 대거 공개된다. 디지털 트윈, 제조 DX(디지털 전환),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전문 강연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폭넓은 정보와 영감을 제공한다.

김영주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조 피지컬AI의 중심이 경상남도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피지컬AI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25 The Next AI
- 기 간 : 2025년 9월 24일(수) ~ 26일(금), 3일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요내용 : AI 혁신제품 전시관, 글로벌 바이어 1:1 상담회, AI 솔루션 매칭데이, AI 테크밋업 및 특강, 스타트업 IR 피칭대회, AI 체험행사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공지능산업과 김태현 사무관(055-211-3952)과 노지선 주무관(055-211-39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